



2011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1. 세계무역 전망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3. 한국의 투자 전망
4. 한국의 무역 전망



주요 내용

- ▶ 201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면서 세계무역 증가율도 2010년에는 못 미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 선진경제권은 개도국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출 회복이 예상되며, 수입의 경우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수입 증가가 예상됨.
 - 개도국 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전망임.
- ▶ DDA 협상은 각 회원국이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의 창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던 협상이 탄력을 받아 2011년 하계휴가 전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2011년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수출증가를 통해 자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0월 6일 정식서명을 마친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 만에 우리나라 국회와 유럽 의회의 비준 동의를 마치

- 고, 내년 7월경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는 지난 12월 3일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바, 그 비준이 가시화되어 2012년 초까지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 및 실물경제지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 증대폭이 커질 것임.
- 2010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국내 및 전 세계 투자여건 개선 조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제2의 투자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실현될 경우 2011년 해외직접투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2010년에 이어 전반적인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수출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0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9년 및 2010년에 비해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1. 세계무역 전망

가. 세계무역 전망

■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2011년 세계무역은 2010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통화기금(IMF, 2010년 10월 발표)은 2011년 세계무역(상품+서비스)이 2010년 대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0년 11월 발표)는 2011년 세계무역(상품)이 2010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IMF에 따르면 2011년 선진경제권의 수입은 2010년 대비 약 5.2% 증가하고, 개도경제권의 수입은 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면서 세계무역 증가율도 2010년에는 못 미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11년 세계무역 전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무역량 (상품 + 서비스)	2.9	-11.0	11.4	7.0
수입				
선진경제권	0.4	-12.7	10.1	5.2
개도경제권	9.0	-8.2	14.3	9.9
수출				
선진경제권	1.9	-12.4	11.0	6.0
개도경제권	4.6	-7.8	11.9	9.1

주: 개도경제권에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이 포함됨.
 자료: IMF(2010, 10), *World Economic Outlook*.

나. 주요 지역별 무역 전망

■ 선진경제권은 개도국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출 회복이 예상되며, 수입의 경우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

- 미국은 2011년 무역 규모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주택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완만한 내수증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증가율(11.2%)이 수입증가율(7.4%)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미국의 2011년 무역수지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상품수출	1,305 (12.5)	1,068 (-18.1)	1,280 (19.8)	1,423 (11.2)
상품수입	2,140 (7.9)	1,575 (-26.4)	1,936 (22.9)	2,080 (7.4)
무역수지	-835 (-4.7)	-507 (-3.6)	-656 (-4.5)	-657 (-4.3)

주: () 안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무역수지는 GDP 대비 비중.

자료: Global Insight(2010, 12).

- 유로화의 가치회복과 신흥국의 경기반등 효과 감소로 인해 EU의 수출은 전년도(2010년 10.9%)보다 낮은 8.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수지는 중전의 적자폭을 거의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EU와 유로지역의 2011년 무역수지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EU 수출/수입	5,659/5,903	4,387/4,438	4,865/4,964	5,265/5,391
EU 무역수지	-244 (-1.3)	-51 (-0.3)	-100 (-0.6)	-126 (-0.7)
유로지역 수출/수입	4,353/4,365	3,379/3,313	3,710/3,680	3,979/3,957
유로지역 무역수지	-12 (-0.1)	66 (0.5)	30 (0.2)	22 (0.2)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

자료: Global Insight(2010, 11).

- 일본은 2011년 신흥시장의 성장지속 및 하반기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대비 4.0% 증가하고, 국내경기의 부진에 따라 수입은 1.0% 증가에 머무를 전망이다.

- 호주와 뉴질랜드의 수출은 자국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감소국면에 진입하는 한편, 수입은 국내소비 활성화, 기업의 재고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11년 무역수지의 적자전환이 예상된다.

■ 2011년 개도국 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중국의 수출은 2011년 세계경기 둔화와 선진국 수요의 감소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2011년 이후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이 구체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게 유지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 인도의 2011년 교역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달러화 약세 및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하락, 세계경기 둔화로 2010년 20%를 넘어선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불가피하며,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수입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 러시아는 2011년 국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루블화 강세가 이어지고, 국내소비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남미의 수출은 일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권의 경제성장 둔화로 8~10% 증가(2010년 23.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각국 통화의 강세와 내수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는 양상이 지속되며, 무역흑자 폭은 2010년 772억 달러에서 2011년 50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Global Insight).
- ASEAN은 역내 관세철폐에 따른 역내 교역의 완만한 증가세와 주요 교역대상국(중국,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천연자원 이외에도 컴퓨터와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이 지속되겠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세계경제 성장의 주춤에 따라 2010년보다는 그 증가속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임. 중동의 201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경제 회복에 따른 상품 수요확대로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사무총장과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cocktail approach)가 진행되었음.

- ‘칵테일 접근법(cocktail approach)’이란 ① 협상그룹별 의장 주도 협상, ② 특정분야 또는 수평적 이슈에 관한 양자 및 소규모 협의, ③ 사무총장이 무역협상회의(TNC) 및 협상그룹과 빈번한 협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접근방법을 가리킴.

■ 2010년 5월에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는 협상 프로세스와 관련, 기존의 다자 프로세스 및 양자협의 외에 새로운 방안으로서, 전체 협상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process)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또한 협상시한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APEC 통상장관회의, 토론토 및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지지함.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 합의문이 채택되었음.

- 지난 4개월간 제네바에서 협상 대표들이 더욱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협의과정에 임해 온 것을 환영함.
-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해 좁지만 중요한 기회의 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과정 참여를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여야 하며,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이고, 수준 높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DDA 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 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협상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함.

-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필요 시 각국이 국내 제도에 따라 비준을 추진할 것을 약속함.

■ 이와 같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DDA 협상은 2011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으로는 2011년 1/4분기에 의장 텍스트 수정안이 회람되고, 하계휴가 전에 세부원칙(모델리티)이 타결되면, 하반기에 양허표 작성 등 기술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가. WTO/DDA 협상 전망

- 2010년 3월 고위급회의로 개최되었던 협상점검회의는 라미 WTO 사무총장의 향후 협상 진행방식에 대한 언급 이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
- 이후의 회의에서는 그룹별 협상, 복수국 간 협의, 양자협의, 라미

- 특히 2011년은 주요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없는 해이고, 2012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대선이 있으므로 각 회원국들은 2011년이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의 창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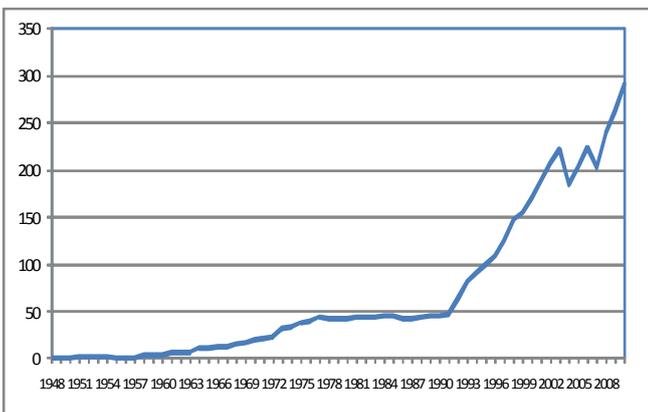
■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건인데, 이 중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11건,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 협정이 6건, 그리고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근거한 협정이 4건으로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음.

나. 세계 지역무역협정 추진 동향 및 전망

1) 세계 RTA 추진 동향

■ 지난 1948년 GATT 창설 이후 199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91건을 기록하였던 지역무역협정은 WTO 출범 이후 오히려 더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 12월 13일 현재 누계기준으로 총 290건에 달함(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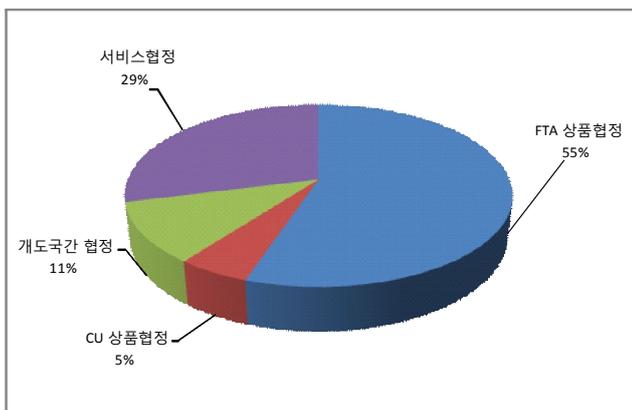
그림 1.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RTA(2010년 12월 13일 기준)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또한 총 290건의 RTA 가운데 GATT 제24조에 의거한 상품무역협정이 175건(FTA 160건, CU 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60%)을 차지하고 있으며, GATS 제5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협정이 84건(29%), 개도국 간 특혜협정이 31건(11%)을 차지함.

그림 2.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2010년 12월 13일 현재)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표 4. 2010년 WTO에 통보된 신규 RTA(2010년 12월 13일 현재)

관련 조항	협정	WTO 통보일	발효일	협정 유형
GATT 제24조	EFTA-세르비아	2010.11.24	2010.10.1	FTA
	콜롬비아-멕시코	2010.9.13	1995.1.1	FTA
	터키-세르비아	2010.8.10	2010.9.1	FTA
	한국-인도	2010.6.23	2010.1.1	FTA
	ASEAN-한국	2010.6.15	2007.6.1	FTA
	EU-세르비아	2010.5.31	2010.2.1	FTA
	ASEAN-호주-뉴질랜드	2010.4.8	2010.1.1	FTA
	온두라스-엘살바도르-대만	2010.4.6	2008.3.1	FTA
	터키-몬테네그로	2010.3.12	2010.3.1	FTA
	페루-중국	2010.3.3	2010.3.1	FTA
GATS 제5조	EU-산마리노	2010.2.24	2002.4.1	CU
	콜롬비아-멕시코	2010.9.13	1995.1.1	EIA
	한국-인도	2010.6.23	2010.1.1	EIA
	ASEAN-한국	2010.6.15	2009.5.1	EIA
	ASEAN-호주-뉴질랜드	2010.4.8	2010.1.1	EIA
	온두라스-엘살바도르-대만	2010.4.6	2008.3.1	EIA
권능부여 조항 (Enabling Clause)	페루-중국	2010.3.3	2010.3.1	EIA
	ASEAN-인도	2010.8.19	2010.1.1	FTA
	인도-네팔	2010.8.2	2009.10.27	PTA
	인도-아프카니스탄	2010.3.8	2003.5.13	PTA
	MERCOSUR-인도	2010.2.23	2009.6.1	PTA

주: FTA(Free Trade Agreement),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2007년 7월 통계부터 서비스 협정(service agreement)이 EIA로 개칭됨),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 한편 2010년 12월 말 현재 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은 [표 5]와 같으며, 최근 추가로 협상이 타결되거나 협상이 개시된 FTA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은 지난 2010년 8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페루 FTA 협상을 타결하고 11월 가 서명을 마침.

- 일본은 2010년 10월 인도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과 인

도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인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정식 선언함.

- 일·인도 공동성명에는 일·인도 EPA 타결 선언, 일본과 인도 원자력 협정 조기 타결 의사, 희토류·희소금속 개발 협력 등이 포함됨.
- 중국은 지난 2010년 8월 스위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밝혔으며, 대만은 중국과 ECFA를 체결한 이래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최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표 5. 세계 주요국들의 FTA 추진현황(2010년 12월 말 현재)

국가	기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한국	ASEAN, EFTA, 미국, 싱가포르, 칠레, EU, 인도, 페루	GCC,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MERCOSUR, 러시아, 중국, 일본, SACU, 이스라엘, 한·중·일
중국	ASEAN,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GCC, SACU,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인도, 한국, MERCOSUR, 남아공, 한·중·일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스위스, 인도	GCC, 호주, 페루	대만,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EU, 한국, 몽골, 한·중·일
미국	NAFTA, 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한국, 호주	FTAA, SACU, 말레이시아, UAE, 에콰도르, 태국	TPP P4+, 뉴질랜드, 대만, 이집트, 베트남, 쿠웨이트, 파키스탄
EU	EFTA, 남아공,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시리아, CARIFORUM, PLO,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안도라(CU),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한국,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페루,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ACP, GCC, MERCOSUR, 캐나다, 이란, CAC, CAN, ASEAN, 리비아, 베트남,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인도,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일본, 파키스탄, 그루지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베트남, 벨라루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란, 중국, 코소보, 카자흐스탄
ASEAN	AFTA, 인도, 일본, 중국, 한국, 호주-뉴질랜드	EU	EFTA, 대만, 미국
캐나다	EFTA,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NAFTA	FTAA, CARICOM, CA4, MERCOSUR, 도미니카공화국, 한국, 싱가포르, EU, 우크라이나, 터키	안데안공동체, EU, 일본, 태국, 인도, 모로코, 우크라이나

표 5. 계속

국가	기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MERCOSUR	멕시코, 이스라엘, CAN, 인도, 칠레, 페루, 볼리비아, 이집트	EU, GCC, FTAA, 멕시코, 모로코, MERCOSUR·인도·SACU, 캐나다	EFTA, SACU, 미국, 한국, 중국, 파나마, CARICOM, SICA, 도미니카(공)
호주	PACER,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칠레, 태국,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ASEAN	UAE, GCC,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멕시코, 인도, TPP P4,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PACER, TPP P4, GCC, 싱가포르, 중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호주-ASEAN, 홍콩, GCC, 말레이시아	한국	멕시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fta.kita.net>)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

2) RTA 추진 전망

- 2011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수출증가를 통해 자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 시 나타났던 보호주의 움직임보다는 자국기업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대만과 터키의 FTA 추진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

- 더욱이, 내년에도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경우 각국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수출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관련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0년 10월 6일 정식서명을 마친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 내 우리나라 국회와 유럽 의회의 비준 동의를 마치고, 내년 7월경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난 2007년 6월 서명된 이후 3년 반 가량 표류하던 한·미 FTA는 미국 측의 요구로 추가협상을 개시하여 지난 12월 3일 자동차 및 돼지고기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합의

를 도출한바, 그 비준이 가시화되어 2012년 초까지는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한국의 투자 전망

가. 최근 투자 동향

1) 외국인직접투자

■ 2010년 1/4~3/4분기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72.6억 달러로 전기대비 5.0% 증가함(신고금액 기준).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분기 -8.1%, 2/4분기 -5.9%, 3/4분기 -13.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기대비 증가율은 1/4분기 -55.5%, 2/4분기 81.2%, 3/4분기 5.0%로 2010년 들어 2분기 연속 증가함.

- 즉 2010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 지연, 유럽재정 불안, 원화강세 등으로 인해 예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회복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가별로는 전통적으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온 일본 및 EU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함.

-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해왔음.

○ 2001년부터 2010년 3/4분기까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투자가 한국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높음.

- 그러나 2010년 1/4~3/4분기까지 일본 및 EU의 투자는 각각 10.3억, 20.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7%, 46.9% 감소하였음.

○ 독일(0.4억 달러), 영국(6.2억 달러), 네덜란드(7.5억 달러)의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1.9%, 63.2%, 46.4%씩 크게 감소함.

- 한편 2010년 1/4~3/4분기까지 중국(3.3억 달러), ASEAN(11.6억 달러), 그리고 중동지역(1.7억 달러)의 투자에 대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128.4%, 276.5%, 390.0%로 매우 높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운송용 기계,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였음.

- 2001년부터 2010년 3/4분기까지 투자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121억 달러)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236억 달러)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함.

○ 전기·전자의 경우 반도체(83억 달러), 금융·보험의 경우 금융업(206억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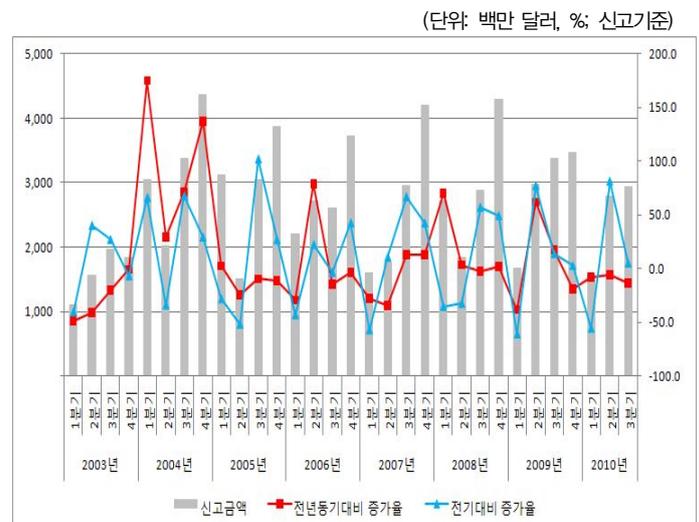
- 그러나 2010년 1/4~3/4분기까지 투자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7.8%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39.0% 감소함.

○ 제조업의 경우 운송용 기계(14억 달러),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임대(15억 달러)에서 많은 투자가 유치됨.

■ 이와 같이 운송용 기계 및 부동산임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높은 것은 사모아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투자가 많기 때문임.

- 운송용 기계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이 사모아(13.6억 달러)로부터, 부동산임대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7.5억 달러)로부터 이루어짐.

그림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주: 금액은 왼쪽, 증가율은 오른쪽임.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http://www.n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2) 해외직접투자

■ 2010년 1/4~3/4분기까지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함(투자금액 기준).

- 2010년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분기 177.4%, 2/4분기 -16.8%, 3/4분기 12.8%로 2009년보다 양호한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전기대비 증가율 역시 1/4분기 -69.3%, 2/4분기 36.9%, 3/4분기 36.0%로 증가하는 추이로 전환되었음.

- 즉 2010년 해외직접투자 역시 외국인직접투자와 유사하게 예년 수준까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회복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가별로는 중국 및 미국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함.

- 2001년부터 2010년 3/4분기까지 한국의 총해외직접투자액(1,160억 달러) 중 중국(259억 달러), 미국(213억 달러)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에 달함.

○ 단, 최근 들어 중국 및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실제 한국의 투자에서 중국 및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1.1%에서 2009년 28.9%까지 하락하였으며, 2010년 31.2%로 소폭 상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각각 한국의 제1, 2위 투자대상국임.

○ 2010년 1/4~3/4분기까지 투자 역시 중국(22억 달러) 및 미국(15억 달러)으로의 투자가 가장 많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자부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함.

- 2007년 이후 감소하던 전자부품의 투자는 2009년 7.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크게 증가하여 2010년 1/4~3/4분기까지 9.3억 달러가 투자됨.

- 이에 비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는 2010년 들어 급격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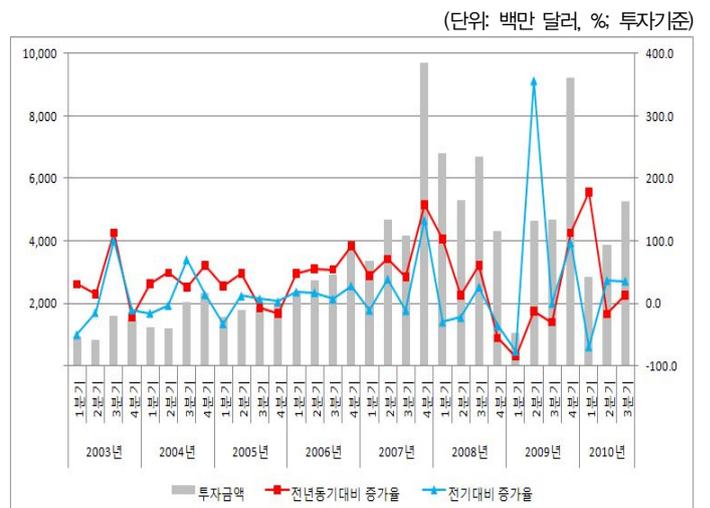
○ 두 산업의 2009년 투자는 각각 18.1억, 23.6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2010년 1/4~3/4분기까지 각각 7.7억 달러, 10.2억 달러를 투자하여 4/4분기만을 남긴 현재 절반 수준 이하로 투자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 패턴이 최근 들어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추이에 따르면 과거 제조업의 경우 양국 모두 전자부품에 대한 투자가 많았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10년 1/4~3/4분기 동안 제조업 중 1차 금속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서비스업 투자에서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음.

그림 4. 해외직접투자 동향



주: 금액은 왼쪽, 증가율은 오른쪽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investTotal_year.jsp).

나. 투자 전망

■ UNCTAD(2010)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1년 1.3조~1.5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가 1.8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어 1.6조~2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Global Insight(2010년 12월)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2010년 4.6%에서 2011년 7.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그리고 지식경제부(2010)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 및 제2차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3개년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음.

- 2010년 9월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비스 투자 증가가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장기적·지속적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3개년 계획(2010년 말 발표 예정)을 준비 중임.

■ 따라서 2011년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 및 실물경제지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투자증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확대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어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1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Insight(2010년 12월)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2011년에도 13.1%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한국의 제2투자국인 미국의 2011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즉, 국내 및 전 세계 투자여건 개선 조짐에 따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의 제2투자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실현될 경우 2011년의 해외직접투자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4. 한국의 무역 전망

가. 2010년(1~11월) 무역 현황

■ 2010년 1~11월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한 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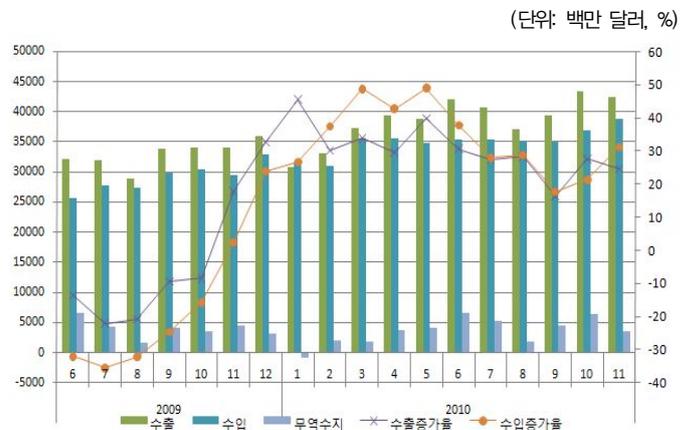
억 달러, 수입은 3,852억 달러로 32.8% 증가함.¹⁾

- 수출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규모를 회복하여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8년 4,220억 달러를 넘어선 반면, 수입은 경제위기 이전 규모에 다소 못 미침.

○ 2008년 수출은 약 4,220억 달러, 수입은 약 4,353억 달러였음.

- 2010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1~11월간 무역수지 흑자액은 약 391.1억 달러로서 2009년의 404.5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

그림 5. 월별 수출입 추이(2009. 6~2010. 11)



주: 11월 데이터는 지식경제부가 2010년 12월 1일 발표한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0년 1월~11월 20일의 기간 동안 주요 수출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20% 가량 감소하였음.

-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7.5% 증가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30.5% 증가하여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높았음.

○ 동기간 대(對)선진국 수출비중은 28.4%, 대개도국 수출비중은 71.6%로, 대개도국 수출이 전체 수출증가를 견인함.

- 선진국 가운데는 일본, 미국, 개도국 가운데는 중국, ASEAN, 중남미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EU의 경우 일부 국가(영국 45.0%, 독일 26.2%)에 대한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세가 더뎠다 수출증가율이 낮은 편이었음.

1) 본 수치는 11월 전 기간에 걸친 무역규모의 추정치이며, 뒤의 품목 및 국가별 11월 무역규모는 11월 1~20일간의 무역규모로 두 수치 간에 차이가 있음.

표 6.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11.20)
전체 수출	371,489 (14.1)	422,007 (13.6)	363,534 (-13.9)	409,252 (29.7)
미국	45,766 (6.0)	46,377 (1.3)	37,650 (-18.8)	43,903 (32.7)
EU	55,982 (15.6)	58,375 (4.3)	46,608 (-20.2)	46,862 (15.6)
일본	26,370 (-0.6)	28,252 (7.1)	21,771 (-22.9)	25,248 (32.9)
중국	81,985 (18.0)	91,389 (11.5)	86,703 (-5.1)	101,996 (36.2)
ASEAN	37,495 (20.8)	49,283 (27.2)	40,979 (-16.8)	46,571 (31.8)
중남미	25,781 (25.2)	33,267 (29.0)	26,715 (-18.9)	33,195 (40.7)
중동	19,721 (36.4)	26,647 (35.1)	24,039 (-9.8)	24,356 (17.7)
아프리카	8,257 (6.8)	9,386 (13.7)	8,467 (-9.8)	8,801 (22.2)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2010년 1월~11월 20일 기간 동안 반도체(72.9%), 영상기기(48.4%), 자동차(43.3%), 석유제품(37.8%) 등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짐.

- 반도체는 수요확대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미국과 개도국의 전반적인 수요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단가가 상승하여 수출 규모가 증가함.
- 2010년 1월~11월 20일 기간 동안 무선통신기기(-14.4%)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목이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함.

표 7.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11.20)
전체 수출	371,489 (14.1)	422,007 (13.6)	363,534 (-13.9)	409,252 (29.7)
반도체	39,045 (4.5)	32,793 (-16.0)	31,042 (-5.3)	45,518 (72.9)
자동차	37,284 (13.2)	35,032 (-6.0)	25,411 (-27.5)	30,550 (43.3)
무선통신기기	30,458 (12.7)	35,713 (17.3)	30,986 (-13.2)	24,105 (-14.4)
컴퓨터	13,808 (9.8)	10,697 (-22.5)	8,013 (-25.1)	7,994 (14.3)

표 7. 계속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11.20)
선박류	27,777 (25.6)	43,157 (55.4)	45,128 (4.6)	44,114 (10.2)
석유제품	23,966 (17.5)	37,573 (56.8)	22,965 (-38.9)	27,497 (37.8)
합성수지	13,000 (16.3)	14,909 (14.7)	13,260 (-11.1)	15,015 (29.9)
영상기기	7,001 (-10.0)	6,665 (-4.8)	4,316 (-35.2)	5,605 (48.4)
철강판	12,375 (12.5)	15,948 (28.9)	12,060 (-24.4)	14,177 (36.8)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편 2010년 1월~11월 20일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중국, ASEAN에서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함.

- 선진국에서의 수입은 31.2%, 개도국에서의 수입은 34.4% 증가하였음.

표 8.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11.20)
전체 수입	356,846 (15.3)	435,275 (22.0)	323,085 (-25.8)	374,511 (33.1)
미국	37,219 (10.6)	38,365 (3.1)	29,039 (-24.3)	36,254 (43.6)
EU	36,824 (22.5)	39,981 (8.6)	32,232 (-19.4)	33,717 (20.1)
일본	56,250 (8.3)	60,956 (8.4)	49,428 (-18.9)	56,654 (31.7)
중국	63,028 (29.8)	76,930 (22.1)	54,246 (-29.5)	62,865 (32.7)
ASEAN	33,110 (11.3)	40,917 (23.6)	34,053 (-16.8)	39,133 (30.3)
중남미	11,324 (16.4)	13,756 (21.5)	11,648 (-15.3)	11,392 (18.4)
중동	67,541 (8.0)	101,645 (50.5)	61,613 (-39.4)	71,321 (33.9)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0년 1월~11월 20일 기간 동안 내수회복으로 인해 대부분 품목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608.7억 달러, 38.9%) 및 석유제품(161.6억 달러, 46.5%)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나. 2011년 무역 전망

■ 2010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4,5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은 4,2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경기부양효과 소멸 및 선진국 내수회복 부진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1년 수출은 2010년에 이어 전반적인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수출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0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수출보다 2~3개월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2010년 4월 이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본원의 2010년 11월 전망치에 의하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0년 4.3%에서 2011년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와 LCD는 일본과 대만 업체들의 공급 확대로 수출단가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빅 3' 와 일본 도요타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 중국이 2010년 상반기 전 세계 수주 1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업계를 압박함.

- 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입 지속, 국제적 통화절상 압력 등의 요인이 나타날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유가는 2011년 하반기 수요증가로 인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역수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었으나, G20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각국의 보호무역장벽 도입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WTO의 추산에 의하면, 2009년 11월 이후 도입된 보호무역장벽은 전 세계 수입의 약 0.4% 정도에 영향을 주는 수준에 불과함(WTO 2010. 6).

- 단, 금융위기 기간 중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잔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위기 발생 이후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31%가

산업지원 등 국내 정책적 조치인바(Global Alert 2010. 6), 이러한 조치가 잔존할 경우 세계 무역 및 경제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상의 내용과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2011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대비 약 8~10% 증가, 수입은 12~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9년 및 2010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KIEP

■ 참고문헌 ■

- Global Insight. <http://www.globalinsight.com>,
Global Alert, 2010. "Unequal Compliance: The 6th GTA Report,"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June)
UNCTAD, 2010.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WTO, 2010. "Report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June)
지식경제부, 2010. 「2010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
(10월 7일)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
investTotal_year.jsp](http://keri.koreaexim.go.kr/05_invest/01_statistics/investTotal_year.jsp).

연구진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장

(jdkim@kiep.go.kr, Tel: 3460-1028)

김홍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hjhyun@kiep.go.kr, Tel: 3460-1050)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Tel: 3460-1093)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Tel: 3460-1135)